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7년 8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연구개발비 26억 개인 빚 갚은 업체대표 적발
- 롯데닷컴, 업계 최초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획득
- 文대통령 '공익신고법 강화' 공약...자본시장 내부고발 확대될까
- "사장이 직접 청취" 제약사, 내부고발 핫라인 강화
- 거래소, 상장사에 내부자거래 '경고문' 발송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한국후지제록스] 창조, 관계, 미래로

3. 청렴 위반 사례

- 퇴임식 관련 학부모회의 목걸이 제공
- 국제회의에서의 외부강의

4. 지식마당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연구개발비 26억 개인 빚 갚은 업체대표 적발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하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34억원 중 26억원 상당을 8년 동안 횡령한 제조업체 대표와 전무이사를 적발했다.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연구개발비(R&D)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전무이사 B씨는 정부가 2008년부터 7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연구와 무관한 주변 지인들의 업체로부터 연구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렸고, 타인 명의로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개발비를 챙겼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연구개발비 중 수익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연구개발비(R&D) 횡령·편취 사건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며 "관리·감독기관도 정부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182>

2. 롯데닷컴, 업계 최초 반부패경영 시스템 'ISO 37001' 인증 획득

온라인종합쇼핑몰 롯데닷컴은 지난 3일 유통업계 최초로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식 제정한 조직의 반부패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기준이며, 윤리경영, 청렴활동, 법규준수, 내부통제, 뇌물수수방지활동 등 반부패를 위

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ISO 37001은 전세계 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인증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닷컴 윤리경영 팀장은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파트너사에게는 공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9886>

3. 文대통령 '공익신고법 강화' 공약...자본시장 내부고발 확대될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의지를 밝힘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내부고발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국정과제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특성상 시장 매매 등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상황에서, 구두로 정보가 오가거나 조사 이전에 증거를 인멸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내부자 거래가 쉽지 않기에 사람에 의한 공익제보가 필수적" 이라고 밝혔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211122671842>

최근 동향 및 소식

4. "사장이 직접 청취" 제약사, 내부 고발 핫라인 강화

국내 제약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강화의 일환으로 제보 시스템을 손질하고 있다. 올해 초 제약바이오협회는 1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지표를 조사,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가 평점 3.46으로 대분류 중 가장 낮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의 움직임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녹십자는 청탁금지법 신고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사이버신문고(Knock Talk)를 리뉴얼 하는 등 제보 시스템을 손질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십자 관계자는 "기존에도 내부에서 CP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내부망을 사용했다"며 "반면 이번 리뉴얼을 통해 외부 서버로 제보 시스템을 옮겼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익명성이 보장됐지만 제보시의 불안감 해소와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외부 서버로 제보 시스템을 이동했다"며 "이를 통해 제보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영진약품 또한 '청렴핫라인'이라는 사내 제보 시스템의 가동에 들어간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익명성을 확실히 보장한다"며 "핫라인의 제보 내용은 직접 사장이 청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3017>

5. 거래소, 상장사에 내부자거래 '경고문' 발송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전체 상장사에 내부자거래 관련 주의공문을 보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거래 통제를 촉구했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주의 촉구'라는 제목으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2151개 상장사 대표이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최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크게 증가 추세에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하여 상장법인 CEO 등 최고경영진들에게 회사 중요정보의 사전에 유출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임직원 예방교육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년 50건 이상 상장법인 내부자(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 포함)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88건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늘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및 내부통제 구축관련 컨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상장법인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724000050>

윤리경영 실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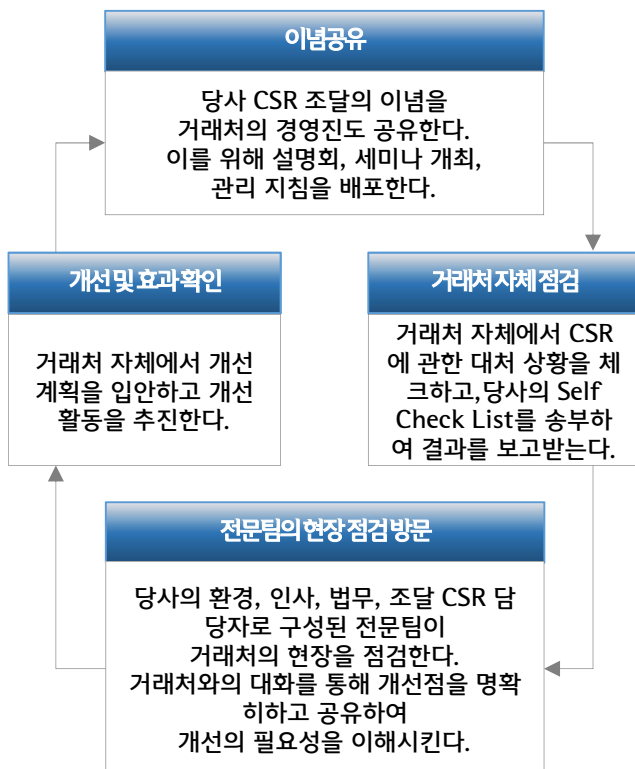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 창조, 관계, 미래로

한국후지제록스는 ‘CSR은 경영 그 자체’라는 이념 아래, 내부적으로 사업 활동을 개혁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와 사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당사의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를 경영에 반영하고, PDCA 사이클을 적용하여 이를 개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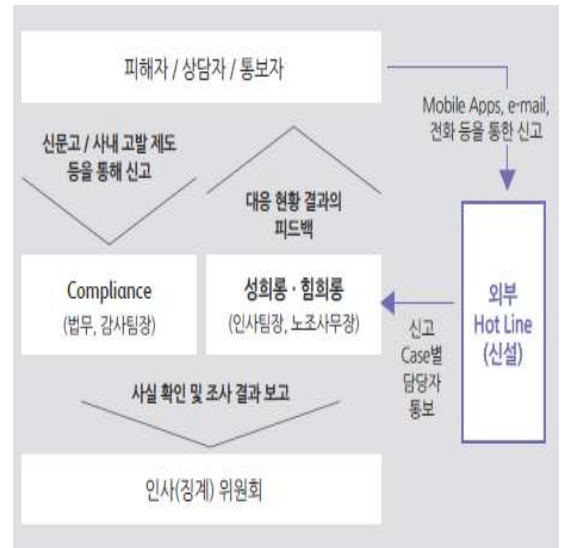
1. 견고한 경영 기반

거래처를 위한 활동

한국후지제록스는 공급망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거래처에 CSR 경영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래처의 최고 경영진에서 실무자까지 모든 사람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CSR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써 전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CSR 활동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CSR 조달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설명회, 최고경영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 관리지침 및 CSR Self Check List 전개, 현장 점검 방문 등으로 거래처가 이해할 수 있고 실효성 높은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내 Helpline 개설

최근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시행 등으로 윤리경영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경영 실천 기업으로 먼저 ‘선물수수 및 접대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사적으로 공유하였으며, 사원 임직원의 법률 준수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의 형성을 위해 헬프라인(Helpline)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2. 환경보전 및 안전하고 활기찬 사회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CO₂ 저감

모든 임직원이 자신들의 업무 변화와 개선을 통하여 환경 부하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영업부에서는 고객의 과제 해결, 기술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 개발과 총 원가개선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라이프사이클 전체의 환경 부하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이 공통으로 업무 효율 향상을 통한 총 노동시간 단축에도 노력하여 환경 부하 저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5년	2015년	효율화 비율
부재 조달	1.00	0.80	20%
생산	1.00	0.64	36%
물류	1.00	0.65	35%
고객처 사용 시	1.00	0.18	82%

* 2005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개선 진척 상황

고객사의 CO₂ 저감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고객의 과제 해결과 환경 부하 저감의 양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환경 기능과 편리성을 양립시켜 편안한 친환경을 구현하는 'Real Green' 컨셉이다. 고객에게 스트레스를 강요하는 친환경은 진정한 환경 기능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 참가 및 실천

후지제록스는 2002년도에 UN이 제창하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이하 유엔 GC)의 이념에 찬성하고 가입에 서명하였다. 후지제록스 및 관련 회사는 CSR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엔 GC의 이념을 기본적

인 가치관의 하나로 규정짓고 사원 행동규범의 내용이 이 같은 이념을 반영하였으며, CSR 조달을 추진할 때에도 거래처에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도입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야마모토 사장(당시, 현재 회장)이 유엔 GC의 CEO선언에 서명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최고경영자의 약속과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유엔 GC의 LEAD 기업(현재 세계 43사)으로 임명되어 참여를 표명하였다. 또한 유엔 GC 뉴욕 사무실 및 글로벌 콤팩트 네트워크 재팬에 사원을 파견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5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판매사를 총괄하는 후지제록스 아시아퍼시픽이 폐기물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 이용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2015 지속가능경영대상(싱가포르)'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싱가포르, 런던, 홍콩 등에 거점을 둔 Global Initiatives가 ASEAN 6개국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후지제록스 아시아퍼시픽은 한국,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9개국 및 지역 거점에서 '매립 폐기물 제로', '오염 제로', '불법 투기 제로'를 달성하여 환경을 배려한 지속가능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비즈니스 영역을 초월하여 자원순환형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공헌이 높이 평가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후지제록스 지속가능보고서 2016

청렴 위반 사례

1 퇴임식 관련 학부모회의 목걸이 제공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퇴직 예정 공직자 A 에게 학부모회에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목걸이를 주문하여 제공하였다. 해당 금품은 50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제공자들은 상호 합의하에 돈을 모아 금품을 마련하였다. 퇴직 예정 공직자는 학부모회와 직무 관련성이 없었고, 퇴직일을 3개월 앞 둔 상태이다. 해당 금품은 퇴임식 때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점 :

- ① 공직자 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퇴직 예정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②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 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 경우에도 공직자와 제공자 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금품 등이 제공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③ 개인은 가액범위 내로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개개인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각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이 제공한 금품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 내라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각출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한 자들은 각각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아 제재대상에 해당됨

2 국제회의에서의 외부강의

모 대학의 A 교수는 최근 국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공식 국제행사에서 발표, 토론을 하여 관련 사례금을 받았다. A 교수의 경우 외국기관의 초청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고, 외국기관에서 받는 사례금은 상한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시사점 :

- ①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하는 발표, 외국기관의 초청으로 참석한 세미나 등에서 발표, 토론을 하는 것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됨.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법 제10조제2항)
- ②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이것이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지식마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 개요

2000년대 초를 기점으로 미국의 Enron社나 WorldCom社, 프랑스 Vivendi社의 분식회계, Nike社의 아동노동, 일본의 유키지루시(雪印)유업의 우유 식중독 사건에서 가깝게는 국내 일부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가 불거지면서 지난 수 년간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이나 사회공헌활동 등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급속한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시민단체 등 비정부 기구(NGO)의 영향력 증대, 소비자 행동의 변화, 기업간 경쟁격화가 맞물리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부각되기 시작한 기업의 사회적책임 개념은 수많은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이제 하나의 산업을 낳았다.

전담직원을 두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관련 인터넷 웹 사이트, 뉴스레터, 전문기관이 생겨났으며 수많은 컨설턴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관련된 취업 세미나가 열리는가 하면, 대기업의 경우 연말보고서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개별기업이나 국제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강령, 원칙, 기준과 같은 규범을 마련하고, 수많은 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관련 용어들이 국내외 언론 및 학계 등에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이제는 하나의 유행어처럼 자리잡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뜻하는 용어 중에서 비교적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나, 그 개념에 관해서는 이를 바라보는 기관마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CSR 정의	
구 분	정 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업들이 자발적 방식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자사의 기업활동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통합시키는 개념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	기업들이 사회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법 준수를 뛰어넘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 이니셔티브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위원회	기업이 법적 의무를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이니셔티브이며, 기업이 자사 활동이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방식
국제사용자기구(IOE)	법 준수를 뛰어넘는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서의 기업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활동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기업협의회(WBCSD)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전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요소들을 정리하면 자발적 성격,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고려, 사회, 환경적 측면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데, 종업원, 주주, 협력업체, 소비자, 시민단체, NGO, 노동조합, 정부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식마당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효과

기업들로서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에는 사회적 압력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수동적 이유 외에도, 경제적 이익이라는 적극적 이유도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낼 수 없다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적 책임도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경제적 실익이 없으면서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위험관리(risk-management)를 통한 무형요소(intangible)의 관리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부정사건, 부정적 언론 보도, 반기업 정서 등과 같은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브랜드가치 및 기업명성과 같은 무형적 자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효과	관련 근거
기업명성 및 브랜드가치 제고	세계화된 경제하에서 기업명성과 브랜드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이윤, 매출액 및 소비자 충성도 증대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 이윤 창출
투자 및 협력업체 유치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기업은 고급투자자와 협력업체를 유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경쟁업체들이 비용은 적게 들지만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책임한 솔루션을 채택할 때, 이를 기회로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대안과 솔루션을 모색
위기관리 및 방지	명성이 위협받을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가 타격을 입을 수 있음
우수 인력 확보 및 유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42%가 구직 결정을 할 때 기업의 윤리적인 면을 고려

4.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사항

어디까지나 기업은 자선활동이 아닌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며, 이러한 이윤창출을 통해서만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하며, 납세를 통해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이윤창출이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이윤 창출 활동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별도의 책임이나 의무를 기업에 강요하거나 또는 기업으로부터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높아진 인식과 관심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경제, 사회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국내·외 모든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본질 및 기능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이윤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윤창출을 위한 왕성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제 사회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많은 이윤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포함한 법적 제도적 환경개선, 기업가정신 함양, 기업인 사기진작 등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인증, 감사, 라벨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이행평가제도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무엇보다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본질 및 기능을 부인하거나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도록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기덕, 부각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대은경제리뷰 2003년 3.4월호, 2003.

이상민, 최인철,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삼성경제연구소, 2002.

Quiz

1.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국외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그 영향이 부각되진 않고 있음.
 - ② 2000년대 초를 기점으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함.
 - ③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이나 사회공헌활동 등이 부각되고 있음.
 - ④ 미국의 Enron社나 WorldCom社 사건과 관련이 있음.

2.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슈가 불거진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급속한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② 시민단체의 영향력 감소
 - ③ 소비자 행동의 변화
 - ④ 기업간 경쟁격화

3. 다음 중 각 기관이 정의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잘못 짝지어진 것은?
 - ① EU - 기업들이 자발적 방식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자사의 기업활동 등에 통합시키는 개념
 - ② UNCTAD -기업들이 사회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
 - ③ IOE- 법 준수를 뛰어넘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 이니셔티브
 - ④ WBCSD - 사회전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 ① 기업명성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② 이윤, 매출액 및 소비자 충성도 증대
 - ③ 투자 및 협력업체 유지
 - ④ 우수인력의 유출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③ 부패정도가 낮은 경우를 높은 점수, 부패정도가 심한 경우를 낮은 점수로 하고 있다.
2. 답 ①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는 90년대 중후반에 40점대에 머물렀다.
3. 답 ④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시리아 등이 있다.
4. 답 ② 부패인식지수는 실제 부패 자체를 지수화 한 것은 아니기에 국민들이 부정적이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 행사

1. 정세균 의장,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재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임명

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 31일(월)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1급상당)에 이재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이 정무수석비서관은 이승천 전 정무수석비서관의 뒤를 이어 정 의장의 남은 임기동안 국회의장 정무수석실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재경 정무수석비서관은 현재 광운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재경 정무수석비서관은 민주당에서 정책위 부의장, 홍보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 등을 역임하면서 당 안팎으로부터 뛰어난 정무감각을 가진 대표적 전략기획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767>

2. 강원랜드, 카지노고객 대상 청렴캠페인

강원랜드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카지노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8월3일 까지 총 7일간 '청렴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청렴캠페인은 고객들에게 불법도박신고제도의 주요 취지를 홍보하고, 게임과몰입에 대한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고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활동하고 있는 불법 도박사업자의 활동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910>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동서발전, 임직원 가족에도 '청탁금지법' 교육 '눈길'

한국동서발전(주)는 지난달 19일부터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아빠(엄마)는 윤리지킴이'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아빠(엄마)는 윤리지킴이' 청탁금지법 교육은 임직원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직접 청탁금지법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새내기 학부모·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임직원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총 14건) 중 일반인이 연루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의 비율(71.4%)이 비교적 높은 점에 착안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인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동서발전은 1차는 직원가족, 추후에는 일반인까지 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02000520>